

이낙연 “박빙 승부” vs 김종인 “정부에 분노”

興 “서울과 부산 모두 이겨...피 말리는 1% 싸움” 野 “과거보다 높은 이유, 정부에 대한 분노 표시”

4·7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최고

4·7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궐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여야의 예측이 갈렸다. 여당은 ‘사이 진보’의 투표로 인해 선거가 박빙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야당은 정권 심판의 기세가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거대책 위원장은 5일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높은 사전투표율과 유세 호응에서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판가름 날 것이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이 한 분이더라도 투표장에 모시도록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것을 고치는 정당은 민주당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다”며 “특히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그것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결의와 정책 기조를 가진 정당 역시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서울과 부산 모두 크게 이긴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피 말리는 1% 싸움으로 갈 것 같다”고 예측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도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박영선, 김영

춘 민주당 후보로 회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에도 실망하지만 거짓말한 후보에게 더 큰 실망을 가지고 있다. 2030 젊은 유권자들도 저희 당 후보의 도덕성, 능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 상승이 야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

으로 확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과거 재보선 선거에 비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자기들의 결집한 세력이 많이 참여해 투표율 올랐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가 몇 때문에 실시되는지 국민들은 잘 안다”며 “박원순 시장·오거돈 시장의 성폭력 사태가 이번 보궐선거를 마련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또한 전날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율을 두고) 각자 각당이 유리하게 해석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 공표 이후에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었잖느냐”며 “그런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여론조사할 때 지지율과 투표장으로 향해서 직접 투표를 하는지는 별개기 때문에 그 투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다”면서 “그래서 누가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말씀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많은 서울시민 분들이 투표장으로 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식목일 나무심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북한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상지초등학교 유채림 학생과 나무를 심고 있다.



서동용, 고교학점제 선도 연구학교 방문

“2025 고교학점제 성공 안착 위해 교육당국·학교현장과 협력 할 것”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서울 당곡고등학교를 방문, 학생맞춤형 교육 실현 현장을 살펴보고 고교학점제를 통한 미래교육 구현의 공감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올해 특성화고(2022년) 등 부분 도입을 시작으로 연구·선도학교를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서울 당곡고를 비롯한 인근 4개교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공동교육 수업을 참

관하며, 교육 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공동 운영하는 공유 캠퍼스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이러한 현장간담회에서는 교사·재학생·졸업생·학부모와 함께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학생중심 학교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체계 구축 등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주요 선결과제를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서동용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공교육을 질적으로 혁신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라며 “고교학점제가 성공적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 현장과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택영기자

박영선 “심상정 도와줬으면” 정의당 “염치가 있어야” 질타

정의당은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자당에 러브콜을 보낸 데 대해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어제 박 후보가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전날 인터넷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내 마음 같아선 심 의원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전화도 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여 대표는 “박영선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인정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라며 “김미숙, 이웅관 두 분과 함께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단식까지 불사했던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게다가 박 후보가 몸 담고 있는 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에는 기만적인 위성 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다.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정의당에 가히 정치테러였다”며 “국민의힘과 기독교 정치 동맹을 공고히 했던 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도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유승민 “내년 대선, 마지막 도전...배수진 치고 준비”

“다음 대선서 선출될 대통령 시대적 문제 해결 능력 가져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내년 대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7일 재보궐선거 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녁’과의 인터뷰에서 대권 도전과 관련,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

각하고) 배수진을 치고 대선 준비를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특히 “다음 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은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시대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앞으로 50년, 100년 살아갈 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며 “그런 점에서 스스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7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여야 모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느냐는 질문에는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후보”라면서도 “국민의힘과 당장 같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재보궐선거의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민심은 (야권이) 크게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끝까지 좀 신중하고 두려운 것은 투표율”이라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번 선거가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막판에 흐르고 있다”며 “중도층이 이 네거티브 선거전에 염증을 느껴서 투표를 포기할까 봐 제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